

##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即身醫世)’ 사상 및 현대적 의의

가이젠민(蓋建民)\*

사천대학종교연구소 · 소장

- I.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
- II. 민일득의 ‘즉신의세’ 학설
- III.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의세중’  
중에 함유된 ‘즉신의세’ 사상의 연관성
- IV.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의 현대적 의의

본고에서는 대순진리회 『전경(典經)』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생의세는 성인의 도”라는 사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순사상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 사이의 ‘의세설(醫世說)’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 의학의 시각에서 대순진리의 ‘제생의세’ 교리가 갖는 현대적 의미도 해석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대 종교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사구시의 학문적 정신을 알아보려 하며,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과 논리학의 이론을 결부하여 역사에서 증거를 찾고, 역사적 증거

---

\* 사천대학종교연구소 소장. 중국 “985프로젝트” 사천대학 종교와 사회연구 창신기지(創新基地) 학술리더. 대학교수. 『종교학연구』 부주필. 『도교의학(道教醫學)』, 『도교과학사상발명(道教科學思想發明)』, 『금단파남종교론(金丹派南宗考論): 도파(道派), 역사, 문헌사상종합연구』 등 다수의 저서 출판. E-mail: gjml964@126.com

와 여러 문헌 자료와 철학적 분석을 결합한 연구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중 종교문화 교류의 시각에서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을 비교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철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순사상의 ‘제생의세’ 사상의 내용, 특징에 대해 세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사회 치유 사상을 비롯한 현대적 의미를 파헤쳐 볼 것이다. ‘제생의세’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사회 치유방법,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I.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사실을 중시하는 것을 존재의 기본으로 삼고, 현세의 삶과 자연의 관계 및 출세(出世)하되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도교사상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도교의 교리를 보면 속세를 벗어남에 한정되지 않고, 세속을 초월한 정신을 지니며,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을 가르치는 것을 중시한다. 세상을 구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며, 사회와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즉신의세’ 사상은 도교의 훌륭한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전경』, 「교운(教運)」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맡춤 들었도다. 그것은 이리하였도다.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써 화민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역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sup>1)</sup>

위의 내용에서는 '제생의세'가 곧 "성인의 도"임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성인의 도의 본질은 "상생의 도"를 실천하고 "화민정세"하는데 있다. 이는 역사상 지배계급이 사용한 "재민혁명"의 "옹패의 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경전 중에는 상제의 신비한 의술과 공부 및 제생에 관한 기록이 매우 많다. 『전경』, 「교운」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유는 종제가 폐병으로 위기에 놓였음을 알리고 상제께 구해주실 것을 간청하여 주기를 치도에게 부탁하니라. 그리고 대유는 동생에게 돈 두 냥을 주효에 쓰라고 내어주면서 이 돈을 이자 없이 갚으라고 일렀도다. 동생은 형에게 한 냥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한 냥을 돌려주고 치도를 따라 상제께 배알하였도다. 그곳에서 동생은 사유를 일일이 고한즉 상제께서 「인색한 자가 어찌 병을 고치리오」 하시니라. 치도와 병자는 상제의 통찰하심에 경복하여 병자는 스스로 송구스러워 귀가하니라. 치도가 병자로부터 받은 한 냥으로 주효를 장만하여 성국으로 하여금 상제께 올리게 하니라. 그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어찌 된 음식이냐」고 물으시기에 성국이 치도의 공양임을 아뢰니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오늘 저녁에 많이 늘어날 것이었는데 부질없는 짓이라」 하시니 치도가 놀라며 상제의 깊으시고 신성하시고 고명하심에 당황하여 물러가기를 여쭙니 「오늘 저녁부터 병자는 보리밥을 먹이라」고 하시므로 이 사실을 병자에게 전하니 그날 저녁부터 보리밥을 먹기 시작하여 병에 차도를 보고 후에 폐병의 괴로움으로부터 재생되었도다.<sup>2)</sup>

상제께서는 보리밥을 환자에게 먹여 병을 낫게 함으로써 환자는 폐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상제께서는 의술을 사용하여 종교를

1) 대순종교문화연구원 편, 『전경』,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152.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전경』에 근거한다.

2) 같은 책, p.156.

전과하였기에 『전경』에서는 “이 일로써 상제의 성예는 더욱더 마을에서 마을로 퍼졌느니라.”<sup>3)</sup>라 하였다.

『전경』, 「교운」 2장 7절에는 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도주께서 어느 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이 쓰인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구세제민(救世濟民)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예(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시천주 조화정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었던다.<sup>4)</sup>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은 짙은 종교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은 대순사상의 “해원상생, 보은상생”의 양대 원리의 기초 위에서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경』, 「공사(公事)」 1장의 구절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5)</sup>

『대순지침』 1편 1장 4절 “대순진리의 신앙을 바르게 깨쳐 나가도록 교화하라.”에서는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광구천하·광제창

3) 같은 책, p.156.

4) 같은 책, pp.199-200.

5) 같은 책, p.94.

생으로 지상선경을 건설하시고자 인세에 강제하셔서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를 선포하셨다.”<sup>6)</sup>라 하였다. 또한 5절 “도인을 진리로써 육성하라.”에서는 “해원상생, 보은상생의 원리로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이념 실천에 힘써야 한다.”<sup>7)</sup>고 하였다. 이상 두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은 “해원상생” 및 “보은상생”이라는 진리를 인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상제님의 광구천하, 광제창생의 유지를 옹계 받드는 것”<sup>8)</sup>이다.

이상 종합해 보면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이 도교의 '제인도세(濟人度世)', '신국동치(身國同治)'의 사상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은 중국 명나라 시기 도사인 민일득(閔一得)이 저술한 『고서은루장서(古書隱樓藏書)』에 나오는 '즉신의세' 사상과 거의 비슷하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도교의 문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민일득의 '즉신의세' 학설

도교에서 사용하는 '즉신의세'의 '의세설(醫世說)'은 청나라 시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진도(全眞道) 용문파(龍門派) 제11대 제자인 민일득은 그의 저서 『고서은루장서(古書隱樓藏書)』에서 “의세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以醫世爲宗)”는 “의세종(醫世宗)” 학설을 제시하였다. 『삼니의서술원서(三尼醫說述原序)』에 기록된 의세설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6)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지침』,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5.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대순지침』에 근거한다.

7) 같은 책, p.5.

8) 같은 책, p.50.

태초에 도(道)는 하나(一)에서 시작되었다. … 인간은 도의 영명지리(靈明之理)를 얻어 성(性)을 이루고, 굴신지기(屈伸之氣)를 얻어 명(命)을 이루었다. 만물은 모두 성과 명 속에 있고, 성과 명은 모두 진일(眞一) 속에 있다. 성명을 제외하고는 도를 논할 수 없으며, 성명 외에 도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삼교(三敎)는 모두 하나에서 나왔다. 유교는 성으로 입명(立命)했고, 불교는 성으로 도명(度命)했으며, 도교는 성으로 복명(復命)하였다. 유교는 하나를 귀(貴)하게 여기고, 불교는 하나로 돌아(皈)가며, 도교는 하나를 얻는다(得). … 유가의 도는 천지에 자리하면서(位) 만물을 기르고(育), 그것을 넘은 자는 화(化)하고, 그것을 보존(存)한 자는 신(神)이 된다. 불교의 도는 무주상보시(無住相佈施)를 실행하고, 모든 복과 덕을 허하게 보니, 그 가치는 대단하다. 도교의 도는 만물을 창조하되 자랑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차지하지 않는다. 그 중지는 모두 무위로써 세상을 도제(度濟)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버리고 세상에 몸을 바치는 것이다. 생명이 생긴 이래, 인간과 나는 도와 성을 같이하고, 도와 명을 같이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형체는 다르지만 기가 서로 통하며, 기가 통하니 성명도 통한다. 하늘을 덮고, 땅의 보살핌을 받으니 그것은 일기(一氣)와 호흡이 통했기 때문이다. 도가 나한테 있으니, 내가 도를 다스린다. 시작이 있으되 일물(一物)을 소유하지 않고, 끝이 있으되 일물을 남기지 않는다. 가장 현묘한 것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일(眞一)의 도인 것이다. 자신을 이루고(成) 물(物)을 이루는 것은 모두 도의 일이다. 만물은 각자가 자신의 성명을 바르게 하고, 마지막에 도로써 완성을 이룬다. 세상을 잃고 홀로 우뚝 서되 도를 말로써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의세설의 시원이다.<sup>9)</sup>

9) 『呂祖師三尼醫世說述』, 『藏外道書』第10冊(成都: 巴蜀書社, 1992), pp.346-347. “太始之初,道立于一, … 人物得其靈明之理而爲性, 得其屈伸之氣而爲命, 萬物皆在性命之中. 性命皆在眞一之中. 性命之外無道, 性命之外無敎. 三敎同出於一也. 儒盡性以立命, 釋見性而度命, 道成性以覆命. 儒貫一, 釋皈一, 道得一, … 儒家之道, 至於位天地, 育萬物, 所過者化, 所存者神; 釋家之道, 至於無住相佈施, 四維上下虛空福德, 不可思量; 道家之道, 至於萬物作而不辭, 生而不恃, 爲而不有, 功成而不居. 其宗旨, 皆無爲而濟世. 豈舍已而從事于世哉. 有生以來, 人我同此一性, 同此一命, 即同此一道. 形穢而氣通, 氣通則性命通, 極天之所覆, 地之所載, 皆一氣呼吸之所通. 道在我則我爲之宰, 其始, 一物不有; 其終, 一物不遺. 而其妙萬物也, 乃一物不有. 斯道也, 何道也, 眞一之道也. 成已成物, 皆道中之事. 萬物各正性命, 而後道之量於是乎全. 遺世獨立, 不可以言道. 此醫世之說所由來也.”

의세설의 요지를 말하자면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몸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sup>10)</sup>라 하였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수련과 외면의 수양을 통해 진원(眞元)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먼저 몸을 다스리고, 다음으로 마음을 다스려 결과적으로 올바른 결실을 맺음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삼니의 심학을 세 번 공부하니, 그 공덕이 쌓여, 혜택이 넘쳐난다(上續三尼心學, 累行積功, 惠而不費).”<sup>11)</sup> 입문하는 방법으로는 “참동계로 진료명을 깨달아야 하고, 대동옥경으로 범세를 교화하며, 도의 진언을 창도하고 마음을 수련한다. 그 다음은 삼니의 의세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세의 경전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데, 의세를 행할 때에는 단계가 있다.”<sup>12)</sup> 의세설에 따르면 ‘즉신의세’의 경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여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조사삼니의세설술(呂祖師三尼醫世說述)』에 “본 역상(易象)은 각 보법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여 제1보부터 제6보에 이르는 대장, 쾌, 건, 구, 둔, 부, 관, 박, 곤, 복, 임, 태(大壯, 夬, 乾, 姤, 遁, 否, 觀, 剝, 坤, 復, 臨, 泰)의 12괘상을 설법(說法)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눈을 감고, 의식을 미간에 집중하며, 머릿속을 주시한다(法先閉目, 意斂目神, 向腦一注).” 이에 대해 여조(呂祖)가 전한 바는 아래와 같다. 보존하는 자는 진일(眞一)이요, 지키는 자는 진원(眞元)이라 한다. 진일은 성(性)이고, 진원은 기(氣)이다. 뇌는 수해(髓海) 또는 천성도회부(天性都會府)라고도 하는데, 마치 천상의 옥청승경(玉清勝境)과 같은 곳이다. 그곳은 지극히 맑고, 높이 성월(星月)에 거처해 있으며, 태무의 천(太無之天)이라 불리는데, 지키고 보존할 줄 알며, 스스로 도를 밝힌다. “뇌 속으로 이어져 있으며, 정수리로 흐른다(繼于腦中, 向頂注之).” 뇌는 인체의 옥청궁(玉清宮)으로, 원시(元始)가 거처하며, 정수리는 신문(凶門)이라 부르는데, 혈자리는 백회(百會)이다. 이

10) 『呂祖師三尼醫世說述管窺』, 『藏外道書』第10册, p.355.

11) 같은 책, p.355.

12) 같은 책, p.355, “當以參同悟眞了命, 大洞玉經化凡, 唱道眞言煉心, 然後以三尼醫世證果. 則醫世經義, 自可以默會, 而行之自有步驟.”

곳은 삼원(三元)이 모이는 곳이다. 위로는 삼천(三天)의 진일(眞一)을 받아, 정수리로 흐르게 하니, 진일이 감통(感通)하고, 진원(眞元)이 모여 흐른다. 이때 붉은색과 노란색의 별빛이 생기는데, 마치 비가 쏟아지는 듯 하다. 진일은 형체가 없고, 볼 수 있는 것은 진원이다. 진원이란 진일이 생성한 기를 말한다. 이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법이란 법칙을 말하고, 공(功)은 공용(功用)을 뜻한다. 법을 행함에 앞서 눈을 감으면, 눈은 마음의 기신(氣神)을 움직인다. 법목신(法目神)은 하늘에 있는데, 그것은 곧 구필이수(苟畢二帥)이다. 이것이 인체에 내려, 행(行)하면 두 곳의 용천혈로 흐르고, 앉으면(坐) 두 곳의 신장(腰腎)으로 흐른다. 닫는다(閉)는 것은 응집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이자(微以者)란 있으면서 없는 듯 하는 것을 말한다. 의(意)는 심신(心神)을 명령하는데 이는 마치 군자가 명을 내리는 것[語敕]과 같다. 상주자(上注者)는 정수리를 뚫고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진일의 원(元)으로써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2) “백회(百會)에서 시작하여, 궤분(闕盆)으로 하유(下游)한다(乃自百會, 下游闕盆).” 백회는 혈자리로 정수리에 위치해 있다. 궤분 역시 혈자리로 가슴에 자리하고 있다. 여조는 말로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깨우쳐야 한다. 하자(下者)란 하나(一)와 원(元)을 끌어오는 것을 말하고, 같이 내려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래의 말을 음미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궤분을 도니(遊), 몸은 한가함을 느낀다(遊夫闕盆, 體得閒趣).” 이것이 법을 행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 여조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하였다. 이 단계(步)에서는 찬란한 현상이 나타난다. 조금씩 정체되었다가 움직였다 하는데, 천군(天君)에 병(病)이 생기면, 이로운 것은 없고, 해로움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단계에 이르면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

(3) “정오에 운이 왕성하니, 모든 길이 열린다(運值正午, 訣惟勸照).”; “말정에 이르니, 청원함이 그 근본이다(已值未正, 正本清源).”; “신정에 들어가니, 단지 심어 기르는 것일 뿐이다(一入申正, 植培而已).”; “운이 술해에 달하니, 법은 오직 둔몽이 반복되는 것이다(運至戌亥, 法惟屯蒙



以俟復.” 여조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비추고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원운(小元運)은 앞으로 당길 수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육시(六時)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용(功用)이 오위(午位)에 오는 것을 심(心)이라 한다. 이것은 일신(一身)을 주재(宰)하고, 일생을 주재한다. 지미(至未) 아래로는 복(腹)이라 하는데, 이것은 염부제(閻浮提)이다. 세상만사는 서로 다르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법도 다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해결법을 운용해야 한다. 육시(六時)의 사용은 모두 학문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도법을 보충(裕)하게 해야 한다. 오미신유술해(午未申酉戌亥)는 모두 건(乾)을 맞이한다. 건은 군(君)으로, 모두 의세(醫世)의 술이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쓰이는데, 못 백성을 교화하고, 군심(君心)을 격상하며,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주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

(4) “활짝(華) 열려서(開) 부처가 보이니, 오랫동안 스스로 축하한다. 이것이 법칙을 행하는 네 번째 단계이다(已而華開見佛, 自造慶會, 于萬斯年. 此爲下手第四步).” 여기서 말하는 화(華)는 곧 심화불(心華佛)로 군(君)을 가리킨다. 개(開)는 마음을 열고 성심(誠心)을 보인다는 뜻이다. 중(中)을 지키며 사심이 없어야만 자신의 의지를 단단히 할 수 있고(中無意必固我), 때에 따라 도인하며(隨機導引), 노력을 다해 교화하며(格非啓沃), 화로에 내린 눈과 같은 신(大有紅爐点雪之神) ... 군신은 모두 일기(一氣)에 있으니, 상(上)을 위함은 덕(德)이요, 천하는 모두 일기(一氣)에 있으니, 아래(下)를 위함은 백성을 위함이다. 바다는 창생을 만나 복을 받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海隅蒼生, 陰受其福而不知矣). 이에 여조는 일(一)과 원(元)을 알고 맞이하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5) “때가 되어, 공덕을 들여 빈틈없이 만드니, 일거일동이 정확히 합하는구나. 두기가 합쳐서 하나가 되니, 의지와 신이 둘이 아니라 현묘한 신험(神驗)이구나. 이것이 곧 법을 행하는 다섯 번째 단계이다(于斯時也, 功造無間, 一舉一措, 不謀自合, 蓋已兩氣混一, 志神不二, 是

妙凝之神驗. 此爲下手第五步).” 여조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 단계에까지 도달하면, 물(物)과 자아를 잊게 되며, 건곤과 정기(正氣)를 같이하고, 안개가 하늘을 덮은 것 같은 기상이 흐른다. 이를 경험 하게 되면, 여기(戾機)가 나타나는데, 이때 반드시 원(元)으로 통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원(乾元)으로 새롭게 하고, 곤원(坤元)으로 중화하여, 진일(眞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군(君)은 성스러워 지고, 민(民)은 선량해져서, 상하가 일기(一氣)를 이루는 것이다.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옹희(雍熙)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6) “공(功)이 이쯤 되면, 조정은 고요하기가 옹희와 같고, 백성은 군주를 잘 받들 것이니, 여기에 진일을 더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곤원(坤元)으로 백성을 보살피며, 건원(乾元)으로 하늘을 이룬다면, 물산이 풍부해지고, 백성을 잘 교화될 것이다. 이것이 곧 여섯 번째 단계이다.” 여섯 번째 공법(功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와 『오진편(悟眞篇)』의 단법(丹法)을 따른 것으로, 먼저 원(元)을 기르고 몸을 수련한 다음 “요명(了命)”하는 것이다. 도교에서는 몸이 없이는 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여 항상 몸을 먼저 다스리라고 한다. “세상에 태어나 몸을 갖고 원을 연마해야 한다. 원을 연마하면 공을 이룰 수 있다.”<sup>13)</sup> 구체적인 요결(要訣)로는 “얼굴색을 허(虛)하게 하고, 하나의 기신(氣神)을 모아, 알(卯)로 만들어 간직한다. 오래하게 되면 안팎의 구별이 사라지고, 신(神)이 완성되며 기(氣)가 족하여 정화(精華)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몸의 신기(神氣)가 왕성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할 때 좋은 결실을 이루고, 못함이 없으며, 걱정이 사라진다.”<sup>14)</sup> 몸을 수련하고 명(命)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은 의세(醫世)의 근본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영명(靈明)의 이치를 받

13) 『呂祖師三尼醫世說述管窺』, 『藏外道書』 第10冊, p.355.

14) 『三尼醫世說述原序』, 『藏外道書』 第10冊, p.346.

아 성(性)을 기르고, 굴신(屈伸)을 기를 받아 명(命)을 이룬다. 만물은 모두 성명(性命)에 있으니, 모두 진일(眞一)의 법을 벗어날 수 없다. 성명 외에는 도(道)가 없으며, 성명 외에는 교(教)도 없다. 그렇기에 의세설에서는 몸과 마음의 수련을 특히 강조한다. 둘째, 명을 기르려면(修) 먼저 성(性)을 길러야 하고, 몸을 다스리려면(治)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민일득은 “도(道)라 함은 고요함 속에 머물며, 평온함과 통해야 한다. 화(和)를 이루고, 청명(淸明)을 지켜야 한다. 성(性)과 명(命)을 합치는 이치로 의세해야 한다(是道也, 當于定靜之中, 寂審氣機之通塞. 及淸充和, 一守淸明之在躬. 有性命合理之理, 而醫世之用胥焉).”<sup>15)</sup> 라 하였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의 수련을 통해 의지를 굳건히 하여, 성명쌍수를 이루는 것인데, 그 목적은 후천에서 선천으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진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得見眞一爲宗).” “수련을 오래하면 몸에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세상사를 잊으며, 태무(太無)로 돌아간다. 공(功)을 이루어, 태초로 돌아가니, 몸과 마음은 마치 조규(祖竅)에 있는 듯 소요 자재하다. 그 때가 되면 몸과 마음이 층만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며 … 몸은 바르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은 전일(專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위는 항상 올바르게 않을 수 없다.”<sup>16)</sup>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몸을 수련하고, 마음을 수행한다면 “몸과 세상을 모두 잊는(身世兩忘)” 경지에 도달 할 것이다.

몸과 세상을 모두 잊으면 세상은 하나가 된다. 위로는 티끌 없이 맑고, 아래로는 만물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끝이 없이 무한하다.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니, 사지와 오장육부는 모두 텅 비어 있더라. 밝은 것은 천(天)으로 알고 어두운 것은 지(地)로 안다. 맑고 탁한 기운의 변화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동정(動靜) 속에 나타난다.<sup>17)</sup>

15) 『呂祖師三尼醫世說述管窺』, 『藏外道書』 第10册, p.357.

16) 같은 책, pp.355-356.

17) 같은 책, p.356, “每到身世兩忘, 旋現一境. 上截淸, 下截渾和, 虛無邊際, 返而內照此身, 肢體臟腑, 空無所有. 但覺白者天如, 黑者地如, 且有激濁揚淸之變化, 流露于動靜之中.”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사실상 도교 내단(內丹)에서 말하는 후천(後天)에서 선천(先天)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바, 그것은 곧 몸이 선천의 “진일(眞一)”로 복귀함을 뜻한다. “진일이란, 잡으려하면 잡히지 않지만, 몸으로 보존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진원(眞元)을 가리킨다. 원(元)이란 물(物)을 뜻하는데, 하나(一)로써 지킬 수 있다.”<sup>18)</sup> 이 경지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셋째, “안으로는 몸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세상을 다스린다(內則用以治身, 外則用以治世).”<sup>19)</sup>이다. 몸을 다스림으로써 마음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세상도 다스려 궁극적으로는 ‘의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민일득은 『여조사삼니의세공결(呂祖師三尼醫世功訣)』에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스승한테서 전해져 온 것을 저술하여 세상에 알리니, 배우고 자 하는 자는 마음을 다스려 허적(虛寂)의 문을 열고, 가슴을 다스려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하며 평안해야 하고, 곤복(坤腹)을 다스려 통태(通泰)함으로써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고, 사지가 통하도록 다스림으로써 세상이 태평해진다. 체(體)를 조절하고 신(身)을 안정시키면, 몸이 안정되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으니, 그 효능은 무량하다.<sup>20)</sup>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이로써 “모든 것이 태평하고 안정”한 상태에 이른다.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널리 안정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되므로, 백성이 풍요롭고 국가가 강성해지는 여염부서(閭閻富庶)의 치세(治世)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18) 같은 책, p.356.

19) 같은 책, p.356.

20) 『三尼醫世功訣』, 『藏外道書』 第10册, p.364, “余今以師傳實效錄述于世, 惟願學者純以調心虛寂之門, 調至胸懷清靜而天都泰安, 調至坤腹通泰而閭閻富庶, 調至四肢通暢而四夷安靖. 如是體調而身安, 身安而世治, 功效捷如響.”

### Ⅲ.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의세종' 중에 함유된 '즉신의세' 사상의 연관성

#### 1. 양자 모두 초기 도교의 '신국동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신국동치(身國同治)’ 이론은 도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다. 한나라 『노자도덕경하상공장구(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에 “전신치국(全身治國)”<sup>21)</sup>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몸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같이 하라는 것으로 “도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몸을 다스리면 장수할 수 있다(用道治國, 則國富民昌, 治身則壽命延長).”<sup>22)</sup>, “만민이 오고 가도 해를 입지 않으며,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것은 신명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안정되어 장수할 수 있다(萬民歸往而不傷害, 則國家安甯而致太平矣. 治身不害神明, 則身安而大壽也).”<sup>23)</sup> “도와 마찬가지로 무위로써 몸과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란다(希能有及道無爲之治身治國也).”<sup>24)</sup> 도교 이론가인 갈홍은 이상 내용에 대해 논하기를 “안으로는 양생의 도를 보존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빛과 화합한다. 몸을 다스려 장수하고, 나라를 다스려 태평한 세상을 만든다(內寶養生之道, 外則和光于世, 治身而身長修, 治國而國太平).”<sup>25)</sup>라 하였다. 도교 경전에는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리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한 사람의 몸은 한 나라를 상징한다. 흉복(胸腹)의 위치는 관직과 같고, 사지는 국경과 같으며, 골격은 문무백관과 같다. 피부 사이의 주름은 사망으로 펼쳐진 도로와

21) 王卡点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北京: 中華書局, 1993年), p.243.

22) 같은 책, p.140.

23) 같은 책, p.139.

24) 같은 책, p.173.

25) 王明, 『抱朴子內篇校釋』(北京: 中華書局, 1985), p.148.

같고, 정신은 군주와 같다. 혈액은 신하와 같으며, 원기는 백성과 같다. 그러므로 지인은 몸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sup>26)</sup>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린다는 사상은 도교의 천인동구(天人同構), 천인상응(天人相應)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는 사회적 정치 및 의학 양생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천지인은 모두 하나의 공통적인 감응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 상태는 천지만물, 사회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천지에 병이 들면(사회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충돌을 빚을 때) 인체는 질병이 생겨(인체의 안팎이 조화를 상실함) 몸은 위태롭게 된다. 『태평경(太平經)』에서는 “천지에 병이 들면, 인간도 병이 들고, 인간이 건강하면, 하늘도 건강하다. 인간이 반병(半病)이면, 하늘도 반병에 들고, 인간에게 크고 작은 병이 생기면, 하늘도 병이 생긴다.”<sup>27)</sup>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질병’을 고치려면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을 통일시킨 것인데, 나라와 몸을 같이 다스린다는 사상은 ‘의세설’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민일득은 의세에 대한 세인들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조사삼니의세공결발(呂祖師三尼醫世功訣跋)』에서 신국동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명확한 설명을 하였다.

의문에 대답하자면, 세상에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의세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기품이나 홍수를 막듯이… 대신통(大神通), 대법력(大法力)의 방법과 주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번에는 책에 저술된 한 가지 방법으로 못 병을 고치려 하니, 안될 것이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병은 오행이 흐트러져 생긴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오행의 정기(正氣)가 있으며 오방(五方)으

26) 같은 책, p.148, “一人之身, 一國之象也。胸腹之設猶宮室也, 肢體之位猶郊境也, 骨節之分猶百官也, 腠理之間猶四衢也, 神猶君也, 血猶臣也, 猶民也。故至人能治其身亦如明主能治其國。”

27) 王明, 『太平經合校』(北京: 中華書局, 1960), p.355, “天地病之, 故使人亦病之, 人無病, 即天無病也; 人半病之, 清天半病之, 人悉大小有病, 即天悉病之矣。”

로 나뉘지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긴 곳을 공격하면, 인세(人世)의 기(氣)가 몸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으로는 자아가 사라지고, 밖으로는 세상이 사라진다. 기가 과하면 줄여주고, 부족하면 보충해주며, 멎치면 흘러 주고, 완고하면 해소해 주고, 역행하면 순행으로 돌려준다. 병은 가지 수를 셀 수 없으며, 의도(醫道) 역시 다양하다. 좋고 나쁨은 모두 그 원리를 보는 것이다. 인체에 병이 생기면 몸의 음양을 운화(運化)하면 되고, 세상에 병이 들었을 때도, 몸의 음양을 조화시키면 된다.<sup>28)</sup>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린다는 사상은 '의세설'의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전경』에 나타난 '제민의세' 사상을 보면, 그 이론적 근거는 역시 도교의 천인합일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대순사상 역시 '신국동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전경』을 읽으며 그 속에 나타난 '제생의세' 사상을 연구해 본 결과, '제생의세' 사상 속에는 '신심동련(身心同煉)', '신국동치(身國同治)'의 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순지침』에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心身)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sup>29)</sup>고 나와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을 수행의 훈전으로 삼아, “참된 도인”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웠는데, 천인합일, 천인상응, 천인동율(天人同律)의 철학 사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8) 『呂祖師三尼醫世功訣跋』, 『藏外道書』, 第10册, p.361, “又疑而問曰: 世之爲病多端, 醫世之事亦多術, 如禳旱滂, 消沴疹, … 皆當有大神通, 大法力, 施符持呪, 分應而不窮. 今是書以一法而欲治眾病, 若是其疏乎? … 凡世間之病皆五行偏勝之氣. 吾人一身之中, 具五行之正氣, 應五方之分野, 察其受病之源, 攻其受病之方, 合人世之氣于一身, 內不見我, 外不見人世. 過者損之, 不及者益之, 郁者散之, 頑者化之, 逆者順之. 病不可悉數, 醫道亦不可殫述, 消息盈虛, 各視其症而理之. 人或有病, 以吾身之陰陽運化之; 世或有病, 亦以吾身之陰陽調攝之.”

29) 『대순지침』, p.23.

**안심(安心)<sup>30)</sup>**

- (가) “대병지약은 안심·안신이라.” 하셨으니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 (나)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한다.
- (다) 마음이 몸의 주로서 제병제악(諸病諸惡)을 낚아들이는 것이다.
- (라) 『전경』에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하셨으니 마음의 발로(發露)에 사심(邪心)을 버리고 예법에 합당케 행하는 것이 안심이다.

**안신(安身)<sup>31)</sup>**

- (가) 심안신태(心安身泰)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다.
- (나) 죄는 마음이 짓고 벌은 몸이 받는 것을 생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욱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전경』에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라고 하셨으니 잘 새겨 두라.
- (라) 여동빈도 “몸의 병에는 약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身病可藥 心病難醫).” 하였고, 옛사람들도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諸病 從心起).”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내 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 (마)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은(親恩)에 보답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수신이 되어야 한다.

**경천(敬天)<sup>32)</sup>**

- (가)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이신 구천상제님의 주재하의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 (나) 도인들이 구천상제님의 대순진리의 봉교신앙(奉敎信仰)에 사려(邪慮) 없는 경건일념(敬虔一念)을 다하는 마음이 경천이다.

상제께서 일일무사 치만물 강산유도 수백행(日月無私治萬物 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셨다.<sup>33)</sup>

30) 같은 책, p.27, “4강령을 수행의 훈전으로 삼아 참된 도인이 되라.”

31) 같은 책, p.27.

32) 같은 책, pp.27-28.



이 오장주(五臟呪)의 내용은 도교의학과 거의 일치한다.

天尊曰木肝中青氣氣從左便重出化爲火心中赤氣氣從前面重出化爲金肺中白氣氣從右便重出化爲水腎中黑氣氣從背上重出化爲土脾中黃氣氣從額上重出化爲百節氣從千脉貫通百事如意萬事如意天上天下地上地下人間萬事無不通則噫噫如律令

『전경』, 「교운」 2장에 “구태인 도창현(舊秦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시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sup>34)</sup>

**종지**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

**신조**

사강령 : 안심 · 안신 · 경천 · 수도

대순진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삼대 목적은

- 무자기(無自欺) - 정신개벽(精神開闢)
-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 인간개조(人間改造)
- 지상천국실현(地上天國實現) - 세계개벽(世界開闢)<sup>35)</sup>

어떻게 하면 이런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 대순진리회 역시 도교와 마찬가지로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사상을 통해 내단 수련법을 제시하였으며, 내법(內法)을 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

33) 『전경』, p.159.  
 34) 같은 책, p.210.  
 35)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진리회요람』,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4.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대순진리회요람』에 근거한다.

수도(修道)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生覺)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sup>36)</sup>

삼대목적(三代目的)을 실현하는 요결(要訣)을 보면, 그것은 곧 천지와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순사상은 도교의 ‘신국동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2. 대순진리회와 민일득의 신국동치 사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유불도 ‘삼교병용(三教併用)’, ‘삼교동수(三教同修)’ 사상이 깃들여 있다.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와 민일득의 ‘즉신의세’ 학설은 모두 명·청 이래 삼교합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조사삼니의세설술』에서는 “의세설은 삼교의 정수이다(醫世說乃三教之精蘊).”라고 하였다.

삼니란 공자, 여래, 노자를 말한다. 『심인집경(心印集經)』에 “청니(靑尼)는 치중(致中)이요, 중니(仲尼)는 시중(時中)이고, 모니(牟尼)는 공중(空中)이다. … 순양진인은 호(號)를 문니(文尼)로 화(化)하여 탁화(鐸化)를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니의 도를 집합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이것으로 백성들을 교화하였다. 여조사는 유석도(儒釋道)를 통합하여 선교하였다. 이것은 하늘의 명을 따른 것으로, 그는 삼교의 스승(三教之師)이라 불린다. 의세설은 삼교의 정수이다.”<sup>37)</sup>

36) 같은 책, p.12.

37) 『呂祖師三尼醫世說述』, 『藏外道書』第10册, p.348, “三尼者, 孔子, 如來, 老子也. 『心印集經』曰: 靑尼致中, 仲尼時中, 牟尼空中. … 純陽真人, 化號文尼, 職司鐸化, 故詔以三尼之道, 敷錫于世, 陰鶻下民. 呂祖師之統儒釋道以宣教. 天所命也, 是以寶誥亦稱爲三教之師. 醫世說乃三教之精蘊.”

유석도(儒釋道)의 삼교는 비록 각자의 교리를 갖고 있지만 “성을 다하여 명을 알고, 천지에 공을 쌓는 것은 삼니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盡性知命而功及于天地, 則三尼同道).”<sup>38)</sup>

유교에서는 예전부터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불교에서는 ‘지세(持世)설’을 내세운다. 민일득의 관점에 의하면 도교의 ‘의세설’은 “몸을 다스려 세상을 안정시킨다(乃有身治世甯之義).”<sup>39)</sup>라는 말이 있기에 유불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세도(世道)를 유지(維持)하는 것으로 의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몸을 다스려 세상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이다(佛曰持世蓋猶我宗之醫世, 乃有身治世甯之義).” “무릇 신기(身氣)와 세기(世氣)는 모두 하나이며, 인성과 불성 역시 하나이다. 이는 모두 다라니에 속하는데, 현세의 몸으로 세상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말이다. 성을 품고 그것을 유지하니 도를 이루지 아니할 수 없고,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 없다. 민일득이 주를 달아 말하기를, 이런 사상은 『삼니의세』설과 같은 것으로, 유불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민일득은 청나라의 건륭(乾隆, 가경(嘉慶), 도광(道光)시대의 유명한 도사이다.

민일득은 성이 민(閔)씨이고, 명(名)은 초부(荅敷)이며, 자는 보지(補之) 혹은 소간(小艮)이고, 도호(道號)는 나운(懶雲)이다. 청나라 무인(戊寅) 12년 초(1758년)에 중국 강남의 대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도광 병신(丙申) 12월 10일(1836년)에 세상을 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으나, 몸이 허약하였다. 동백산(桐柏山)에 가서 동리고자[東籬高子, 고청옥(高淸昱) 용문과 18대]를 스승으로 배알하고, 도인술(導引術)을 수년간 연마하여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었다. 나아가 용문과에 입도하여 파명(派名)을 일득(一得)이라 하였다. 병이 완쾌된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인성이 뛰어났고, 학식에 깊었으며, 이치에 밝았으니, 못하는 것이 없었다. 경전으로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었으나, 부친의 명을 따라 자

38) 같은 책, p.348.

39) 『持世陀羅尼經跋』, 『藏外道書』第10冊, p.558.

위주(紫爲州)에 가 사마(司馬)가 되어 전남(滇南)을 다스렸다. 일 년이 채 되지 않아 부친이 세상을 뜨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관직을 그만 두었다. 동리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수제자인 심경운(沈輕雲)으로부터 도를 배웠다. 경운도 세상을 뜨자, 오초연조(吳楚燕趙)를 두루 다니며 금부부(金懷懷), 백마리(白馬李), 이봉두(李蓬頭), 용문도자(龍門道子) 등을 만나 마음을 나누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모두 비슷했다. 만년에 민일득은 금개산(金蓋山)에 은거하여 저술에 몰두해, 『은루장서(隱樓藏書)』 30여종과 『금개심등(金蓋心燈)』 8권을 썼다. 민일득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삼교동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석의 핵심으로 도교의 묘언을 설명한다(以儒釋之精華詮道家之元妙言).”<sup>40)</sup> “그의 가르침은 체와 용이 있고, 본말도 있기에, 독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신기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몸을 다스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고 성과 명을 아는 것”<sup>41)</sup>을 말한다. 민일득은 또 스스로 자신의 호(號)를 발승제련(發僧際蓮)이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한때 계족도자(鷄足道者)를 스승으로 삼아 서축두법(西竺斗法)과 불교의 참선오도(參禪悟道) 및 명심견성법(明心見性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도교에 입도했지만 또한 “유가의 기상”을 지니고 있었다. 임종 전날 밤에 맹자의 “호연지기를 길러, 적자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善養吾浩然之氣, 不失其赤子之心)”고 하였다. 그의 대표사상인 ‘의세설’은 『고서은루장서(古書隱樓藏書)』의 『여조사삼니의세설술(呂祖師三尼醫世說述)』, 『여조사삼니의세설술관규(呂祖師三尼醫世說述管窺)』, 『여조사삼니의세공결(呂祖師三尼醫世功訣)』에 수록되어 있다.

『여조사삼니의세설술』은 용문(龍門) 제8대 계자(戒子)인 황수중(黃守中)이 서문, 11대 민일득이 근소(謹疏)를 작성하였다. 시작편에서는 이 책이 강계(降乩)의 방식으로 서술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여조가 이

40) 晏端書, 『閔懶雲先生傳』, 『藏外道書』 第10册 (成都:巴蜀書社, 1992), p.154.

41) 같은 책, p.154. “其教人也, 有體有用, 有本有末, 篤于實行, 不事神奇. 大旨以修身寡過爲入門, 窮理盡性至命爲究竟.”

책을 저술하여, 문하에 전해졌다. 역대 조사들은 보물로 여겨, 매도(梅島)의 용교산방(龍橋山房)에 모셔 두었다. 그곳은 황은진율사(黃隱眞律師)가 머물던 곳으로, 유적이 아직도 존재한다. … 여조삼니의세설술을 책으로 남기니, 아직도 삼성본경(三聖本經)이 더 있다. 여조사가 이 책을 저술한 의도는 못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함이라.”<sup>42)</sup> 황수종이 바로 계족도자인데, 그는 북경백운관의 왕상월(王常月)으로부터 계를 받았으며, 용문파라는 도교의 특별한 분파[서축심종(西竺心宗)]를 열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점은, 민일득은 ‘즉신의세’설에 특별한 애착을 보여, 자신의 문과를 “이의세위종(以醫世爲宗)”의 “의세종(醫世宗)”이라 하였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보면 유불도합일의 사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기에 더 이상 상세하게 해석하지 않고, ‘제생의세’ 사상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전경』의 「행록」 2장에는 상제님께서 정유년에 행하신 사적이 나온다.

상제께서 정유(丁酉)년에 다시 정 남기(鄭南基)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永學)과 형렬(亨烈)의 아들 찬문(贊文)과 그 이웃 서동들을 가르치셨도다. 이때에 유불선음양참위(儒佛仙陰陽讖緯)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얼마 동안 글방을 계속하시다가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의 길을 떠나셨도다.<sup>43)</sup>

『전경』의 「교운」 1장에서는 서양인 이마두가 전해온 서양문명과 전통적 유불도 문화의 의미에 대해 평가한 부분이 있다.

42) 『呂祖師三尼醫世說述』, 『藏外道書』第10册, p.348, “呂祖筆之于書, 以授門下. 歷代祖師寶之, 藏于梅島之龍橋山房, 地爲黃隱眞律師別業, 今址猶存. … 曰呂祖師三尼醫世說述者, 正以明是書, 尙有三聖本經. 呂祖師述其意以教人雲爾.”

43) 『전경』, p.17.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44)</sup>

이 문장은 상제께서 교운을 열면서 주신 가르침으로, 최제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신 이유를 알려 주었다.

대순사상의 수행법은 유불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경·신”을 수행의 “삼요체”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수도 과정에 있어서도 ‘유도합수(儒道合修)’의 수행법이 나타나고 있다. 대순에서는 “성·경·신 3요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라.”, “성은 사람의 정·기·신(精氣神)의 합일의 진성(眞誠)이다.”<sup>45)</sup>라고 강조한다.

성(誠)은 유가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다. 『대순지침』에서는 유가의 사상을 인용하여 “지성으로 정심수신(正心修身)하라.”고 하였다.

44) 같은 책, p.148.

45) 『대순지침』, p.28.

- (가) 성현으로 추종받은 옛사람은 성(誠)을 일생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수행한 분들이다.
- (나) 성(誠) 자체는 하늘의 도(道)요, 성(誠)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성으로 바르게 도 닦기를 힘써야 한다.
- (다) 성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도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심정(心定)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 (라) 지성(至誠)은 진리의 여륜(如輪)이요, 불성(不誠)은 역리(逆理)니 망고(網罟)의 자화(自獲)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 (마) 자성(自誠)으로 이루어 놓은 나의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신(神)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sup>46)</sup>

“신(信)”이 수행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대순지침』에서는 9조로 나열하여 강조 하였다.

- (가)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
- (나)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 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 (다)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
- (라) 수도자가 믿음에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 (마)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 (바)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 (사)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아)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에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자)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sup>47)</sup>

맨 마지막 문구인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

46) 같은 책, p.21.

47) 같은 책, pp.30-31.

되는 것이다.”라는 문구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와 연관한 유교적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난다. 『진경』 속 도주께서 말씀하신 “각도문(覺道文)”에는 ‘선유불대도정통(仙儒佛大道正通)’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聖人之道徳, 元亨利貞, 大經大法, 道正天地, 數定千法, 而理定  
心法, 正大光明, 仙佛儒大道正通.<sup>48)</sup>

대순진리회의 『진경』을 보게 되면 유가의 치세사상과 불교의 ‘수심(修心)’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불교와 유교의 폐단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였다. 이러한 유교폐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제님이 이 땅에 강세한 것이다.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sup>49)</sup>

실사구시적 태도로 세상을 대하며,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고(治理), 세상에 태어나되 떠나지 않는다는 사상은 도교 교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대(漢代)의 『태평경』에서 시작하여 청나라 민일득의 『고서은루장서』에 이르기까지 도교의 치세(治世)사상은 초기의 구세설(救世說)에서 ‘즉신치세’의 의세설로 발전하였다.<sup>50)</sup>

『대순지침』 제1편, 제2장, 제3절에 “상생의 원리로 포덕, 교화하라.”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의 법리로 화민정세(化民靖世)하시어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룩한다 하심은 광구천하·광제창생의 대의(大義)이다.

48) 『진경』, p.211.

49) 같은 책, p.148.

50) 盖建民, 『閱一得與道教“醫世說”』, 『世界宗教研究』第一期(2002).



- (나) 포덕은 『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님의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기 위한 대인접촉이다.
- (다) 해원상생 대도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 포덕이며, 포덕천하(布德天下)가 되어야 광제창생이 되는 것이다.
- (라)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 (마) 포덕에서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 심을 널리 알려야 한다.
- (바) 교화는 입도한 도인에게 밝은 재활(再活)이 불역(不易)의 천운구인(天運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 자각케 하는 것이다.
- (사) 교화로써 도를 심심화(心深化)하고 수훈(垂訓)의 진법(眞法)을 행동 실천하여야 수도자의 입문이 될 것이다.<sup>51)</sup>

대순사상에는 아주 풍부한 제생의세 사상이 있다. “(상제께서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대도(大道)의 진리(眞理)로써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으로 해원(解冤)을 위주(爲主)로 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보은(報恩)으로 종결(終結)하시니 해원(解冤) 보은(報恩) 양원리(兩原理)인 도리(道理)로 만고(萬古)에 쌓였던 모든 원울(冤鬱)이 풀리고 세계(世界)가 상극(相克)이 없는 도화낙원(道化樂園)으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대순(大巡)하신 진리(眞理)인 것이다.”<sup>52)</sup> 이런 사상은 도교의 『태평경』, 『노자상이주(老子想爾注)』, 『노자도덕경하상공장주』의 ‘구세(救世)’, ‘치세(治世)’, ‘이신치국(以身治國)’ 사상 및 민일득의 『고서은루장서』에 나오는 ‘즉신의세’의 ‘삼니의세설(三尼醫世說)’과 아주 깊은 연원적 관계를 갖고 있다.

51) 『대순지침』, pp.7-8.

52) 『대순진리회요람』, p.4.

#### IV.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의 현대적 의의

민일득의 ‘즉신의세’의 ‘의세’ 사상은 도교의 사상체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의 사상은 도교에서 출세(出世)와 입세(入世)를 동등하게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울러 명·청 시기 도교학자들의 도교의 수신제세(修身濟世) 사상 연구에 대한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상은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큰 공통점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회의 병폐를 충분히 인식한 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려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견해는 매우 큰 특색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의세’ 사상이 나타내는 인간에 대한 관심, 사회와 생태계에 대한 윤리의식은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지닌다.

현실에 입각하여 실사구시로 세상을 대하고, 인간과 자연사회를 잘 다스리며, 세상에 태어나되 떠나지 않는다는 사상은 도교 교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도교의 교리를 보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세속적인 면을 초월한 정신력으로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며, 경우에 따라 가르침을 준다. 세상을 구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며, 사회와 인간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도교의 훌륭한 전통이다. 한대(漢代)의 『태평경』에서 청대(清代) 민일득의 『고서은루장서』에 이르기까지 도교의 치세사상은 초기도교의 ‘구세설’에서 ‘즉신의세’의 ‘의세설’로 발전하였다. 『태평경』의 ‘구세설’이 초기도교 정치사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면, 청대 민일득의 ‘의세설’은 후기도교의 치세(治世)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다. ‘의세설’의 발생은 명·청 시기 ‘삼교합일(三敎合一)’ 사상이 성숙됨에 따라, 도교의 발전방향 역시 지배계층의 귀족종교

에서 민간종교로 변화하면서 세속화, 민간화의 변화를 겪는 명·청 시대의 복잡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맞물리게 된다.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치세의 이치[道理]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현대사회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사회정치의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대순사상과 도교의 치세사상에서는 사회를 다스리는 것을 방대하고 체계적인 공정이라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을 공통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천지인을 공통적으로 다스리는 사회정치사상은 매우 뚜렷한 환경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두 종교 사상의 '의세설'에서는 모두 사회치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천지인을 종합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직 천지인을 공통으로 다스려야만 훌륭한 치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종교가 모두 공통적으로 천지인 치유의 '의세' 사상을 제시한 이유는 모두 천인합일의 인천관(人天觀)에 그 이론적 근거를 세웠기 때문이다. 천과 인은 서로 얽혀 있고, 공통적인 근원을 가지며, 서로 감응한다는 것이 도교 인천관의 핵심이다.

이러한 인천관에서 볼 때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독한 개체가 아니라 상호 생존하고, 서로 감응하며, 서로에 의존하는 천지인의 큰 체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하는 전체의 일부분인 것이다. 하늘(天)에 땅(地)이 있고, 땅 속에 하늘이 있으며, 인간 속에 천지가 있다. 천지인의 세 속성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서로 포용하고 상호작용한다. 이는 마치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에서 말한 “천지는 만물을 얻어 더욱 풍요로워 지고, 만물은 인간을 얻어 더욱 풍요로워 지며, 인간은 만물을 얻어 더욱 풍요로워진다. 삼자는 서로를 얻어, 서로 유익해지고, 그리하여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天地, 萬物之盜. 萬物, 人之盜. 人, 萬物之盜. 三盜清宜, 三才清安).”라는 말과 같다. 천지인 삼자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잘 처리해야만, 천지인의 체계가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그 기능을 잘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철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성립된 의세론은 사회를 다스림(인간을 다스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인간과 천, 인간과 땅,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두 사상 모두 과도한 자연자원 채취와 환경파괴 및 벌목, 채광, 동물 살해를 반대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은 공통적으로 치국과 치신(治身)을 연관시켜 보면서,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여 두 사상 모두 심신을 다스리는 것과 사회를 다스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신도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서 몸가짐을 잘 해야 한다는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중에 포함된 ‘의세’ 사상은 모두 출세와 입세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대순진리회의 제세이인(濟世利人), 복무사회(服務社會)의 ‘참정신’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고, 부응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출세와 입세에 대한 이론은 모든 종교적 실천 활동에서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도교의 교리를 보면 출세에 한정되지 말고, 세속을 초월하는 정신으로, 세속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경우에 따라 가르침을 주라고 나와 있다. 출세하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사상에는 세상에 남아 인간을 위해 봉사하라는 훌륭한 전통이 내재되어 있다. 도교의 창시자들은 창교 초기부터 인간세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 태평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입세적 태도에 속한다. 탕일개(湯一介)선생은 “도교와 불교에서는 모두 ‘구세(救世)’를 그 종교적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출세와 입세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

이는 두 종교가 지닌 문화전통의 차이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통사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입세사상을 최고의 정치적,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도교에서는 중국사상의 이런 적극적인 입세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sup>53)</sup> 의세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즉신의세’이다. “인성을 바르게 하면, 몸과 기질이 바르게 되므로 정신이 분산되지 않기에 의세를 행하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가깝게는 작은 마을에서 멀리로는 큰 도읍에 이르기까지 그 기질이 미친다. 극에 달할 때는 사대주(四大洲)에 모두 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다스리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한다. 막힌 것을 뚫어주고, 수화의 재난을 피하게 하며, 병란, 곤충재해, 전염병까지도 해결한다. 항상 목표가 바르며, 세속에서 살되 세속과 동화되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물산을 풍요롭게 하여, 모든 사람이 항상 잔칫날같이 보낸다. 작게 쓰면 작은 효능이 있고, 크게 쓰면 큰 효능이 있다.”<sup>54)</sup>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도교 의세의 목적은 “위로는 인자한 군주의 마음을 가지고, 아래로는 백성의 재액을 물리치는 것(上合仁主之心, 下濟生靈之厄)”이다. 이렇게 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지혜로워지고, 관료들도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版圖之內, 無有頑民, 汙吏).”<sup>55)</sup> 백성이 평안하고 물산이 풍부한 태평성세야말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인간선경이 아니겠는가.

대순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생의세’의 목적은 “인간선경”의 건설하는 것이라 말한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성(誠)·경(敬)·신(信)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修道)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安心)·안신(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아 삼강오륜(三

53) 湯一介, 『魏晉南北朝時期的道教』(臺灣: 東大圖書公司印行, 1988), p.375.

54) 『呂祖師三尼醫世說述管窺』, 『藏外道書』第10冊, pp.356-357. “…一性之正, 稟賦乃全. 於是用志不分, 以之醫世, 出神入化. 近則一家一村, 遠則一縣一郡. 推其極則四大部洲, 無不調攝于此方寸之中. 消其災沴, 則無水火, 刀兵, 蟲蝗, 疫. 正其趨向, 則俗無不化, 人無不新, 民安物阜, 熙熙然如登春台. 小用之而小效, 大用之而大效.”

55) 『呂祖師三尼醫世說述』, 『藏外道書』第10冊, p.345.

綱五倫)을 근본(根本)으로 평화(平和)로운 가정(家庭)을 이루고 국법(國法)을 준수(遵守)하여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준행(遵行)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淸淨)한 본질(本質)로 환원(還元)토록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境地)를 정각(正覺)하고 일단(一旦) 활연관통(豁然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透明)하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道通)인 것이다.”<sup>56)</sup> 대순진리회의 삼대목적 중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 세계개벽”<sup>57)</sup>으로, 호응을 이루는데 이는 도교의 ‘인간선경’과 일맥상통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은 모두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교리를 담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탄생된 종교사상이다. 이는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을 계승 발전함으로써 신도들이 바르게 현실사회를 마주하고, 현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훌륭한 이론[예를 들어 도법자연(道法自然)]을 행위의 규범으로 하여 인간과 하늘 및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고요하고, 아름다우며, 소박한 정신세계를 간직한 세

56) 『대순진리회요람』, p.4.

57) 같은 책, p.4.

상을 구현하고, 근검절약을 삶의 미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세상을 구제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으로 돕는 윤리정신을 진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성명쌍수의 양생사상을 중시하여, 사회폐단을 바로잡고, 사회풍기를 정화함으로써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조화를 이룬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 大巡“济生医世”与道教“即身医世” 思想及其现代意义

盖建民\*

四川大学宗教研究所·所长

- 一、大巡『典经』“济生医世”思想
- 二、闵一得“即身医世”学说
- 三、大巡“济生医世”与闵一得“医世宗”之“即身医世”思想的关系
- 四、大巡“济生医世”与道教“即身医世”思想的现代意义

本文旨在系统梳理大巡真理会『典经』“济生医世者，圣人之道”思想的形成发展，探究大巡真理“济生医世”思想与道教“即身医世”的“医世说”的思想关系，从宗教医疗的视阈，深入阐发大巡真理“济生医世”教义思想在现代社会中的现实意义。作者站在当代宗教学研究的视野，以大胆探索和实事求是的学术精神，对大巡“济生医世”思想进行全面系统的挖掘与研究。作者遵循历史与逻辑相统一的原则，以史立论，史论结合，运用文献考释和哲学理性分析相结合的研究方法。一方面，从中韩宗教文化交流的视角把握大巡“济生医世”思想与道教“即身医世”思想的关系；另一方面，从哲学诠释学入手，深入细致地分析探讨大巡『典经』“济生医世”思想内涵、特征，挖掘大巡宗教实践活动中所蕴含的宗教社会治疗思想及其现代意义。

---

\* 四川大学宗教研究所所长，国家“985工程”四川大学宗教与社会研究创新基地学术带头人、教授，『宗教学研究』副主编；著有『道教医学』，『道教科学思想发凡』，『金丹派南宗考论：道派、历史、文献与思想综合研究』等多种论著。E-mail: gjm1964@126.com

其所蕴涵的医治社会弊病，调摄与纠治人与人、人与自然、人之身心内外关系的种种见解和观点，有其现代价值和意义。

## 一、大巡『典经』“济生医世”思想

务实求存，注重现世人生与自然社会的“治理”，出世而不离世是大巡真理会与道教教义思想共通之处与特色。道教之教义，本不限于出世，而是以一种超越世俗的精神，和光同尘，随方设教。济世利人、服务社会人群“即身医世”历来是道教中人的优良传统。

无独有偶，大巡『典经』第一章「教运」亦云：

元一在自己家中侍奉上帝时，上帝讲起圣人之道与雄霸之术，云：“济生医世者，圣人之道也；灾民革世者，雄霸之术也。天下受雄霸之苦久矣，故吾将以相生之道化民靖世。从今之后汝当正心，欲成就大人者积好生之德，岂可杀亿兆苍生而求一己之生。”<sup>1)</sup>

明确提出“济生医世”乃是“圣人之道”，此圣人之道的本质是贯彻“相生之道”从而“化民靖世”，因此与以往统治者惯常使用的“灾民革世”之“雄霸之术”完全不同。

在大巡的宗教经典中，有许多关于上帝以神奇的医术和内炼功夫济生和医治社会的事例，『典经』第一章「教运」有一段记述：

到达金成国家后，大有的堂弟求上帝治病。上道：“吝嗇之人，又如何治病！”

上帝道：“从今夜开始，给病人吃大麦饭。”致道将此消息转告大有的堂弟。大有的堂弟从当晚开始进食大麦饭，病情有所好转，后来从肺病痛苦中解脱了出来。<sup>2)</sup>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中文第一版)，第152页。

此则灵异故事以上帝以大麦饭将人从肺病的疾苦中拯救出来，以医术传教，其结果是“上帝的声誉也因此更加远播四方。”<sup>3)</sup>

『典经』「教运」第二章七云：

一日，道主精于工夫时，一位神人出现，递给道主一张写有字迹纸，神人道：“依此文修道，可救世济民矣。”道主正欲施礼，神人已经消失不见。纸上所书为“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万事知至气今至愿为大降”。<sup>4)</sup>

应该指出，大巡真理此“济生医世”的理念是有其深厚的宗教神学理论基础的，换句话说，大巡“济生医世”思想是依据其大巡的“解冤相生、报恩相生”两大真理而建构起来的。这可以从『典经』相关的教义论述中得到佐证。

『典经』「公事」第一章有云：

上帝对金亨烈道：“在先天，人与世间万物皆为相克之理所支配，世间怨恨日积月累，错综复杂地充斥于三界之中。天地失其常道，各种灾祸丛生，世间暗无天日。因此，吾欲整理天地度数，调化神明，以解万古怨恨，以相生之道建后天仙境，济度世间苍生。不论大小事应由神道解冤，若能事先稳固度数并加以调化，人事便以神道为范实现自我达成，这便是三界公事也。”<sup>5)</sup>

『大巡指针』第一编第一章第四节“为正确理解大巡真理之信仰加以教化”也声明：“上帝（姜馥山为九天上帝）大巡天下后，匡救天下、广济苍生而建设地上仙境降临人世，宣布了前无后无的真理。”“使解冤相生、报恩相生此两大真理深入人心，身体力行。”<sup>6)</sup>

第五节“以真理培育有道人”云：“依据解冤相生、报恩相生的原理，致力

---

2) 『典经』，第156页。

3) 『典经』，第156页。

4) 『典经』，第199-200页。

5) 『典经』，第94页。

6)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大巡指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中文第一版），第一编第一章第四节，第152页。

于实践辅国安民、广济苍生。”<sup>7)</sup>

不难看出，大巡“济生医世”思想是大巡“解怨相生”与“保恩相生”两大真理在处理人间社会问题的具体展现，乃是“尊奉上帝匡救天下、广济苍生的遗志”。<sup>8)</sup>

同时，我们也必须指出，大巡“济生医世”思想与道教“济人度世”、“身国同治”有某种思想渊源关系，尤其是大巡“济生医世”思想与明代高道闵一得『古书隐楼藏书』中阐发的“即身医世”思想不谋而合。下面我们结合道教相关文献加以阐述。

## 二、闵一得“即身医世”学说

道教“即身医世”的“医世说”正式提出和系统阐发是在清代，详见于全真道龙门派第十一代传人闵一得所辑的『古书隐楼藏书』之中，是其“以医世为宗”的“医世宗”所秉持的学说。

关于医世之说的由来。『三尼医说述原序』云：

太始之初，道立于一……人物得其灵明之理而为性，得其屈伸之气而为命。万物皆在性命之中。性命皆在真一之中。性命之外无道，性命之外无教。三教同出于一也。儒尽性以立命，释见性而度命，道成性以复命。儒贯一、释皈一，道得一……儒家之道，至于位天地，育万物，所过者化，所存者神；释家之道，至于无住相布施，四维上下虚空福德，不可思量；道家之道，至于万物作而不辞，生而不恃，为而不有，功成而不居。其宗旨，皆无为而济世。岂舍已而从事于世哉。有生以来，人我同此一性，同此一命，即同此一道。形隔而气通，气通则性命通。极天之所覆，地之所载，皆一气呼吸之所通。道在我则我为之宰，其始，一物不有；其终，一物

7) 『大巡指针』第一编第一章第五节，第5页。

8) 『大巡指针』第四编第二章第三节，第50页。

不遗。而其妙万物也，乃一物不有。斯道也，何道也，真一之道也。成已成物，皆道中之事。万物各正性命，而后道之量于是乎全。遗世独立，不可以言道。此医世之说所由来也。<sup>9)</sup>

关于医世说的旨要，“其大旨不外即身以治世。”<sup>10)</sup>也即通过内炼外养，培养真元，先治以身，次治以心，最终修真正果，达到治世宁之目的。“上续三尼心学，累行积功，惠而不费。”<sup>11)</sup>其入手之门，“当以参同悟真了命，大洞玉经化凡，唱道真言炼心，然后以三尼医世证果。则医世经义，自可以默会，而行之自有步骤”。<sup>12)</sup>

按照医世之说，要想达到“即身以治世”的医世正果，必须经历六个步骤。『吕祖师三尼医世说述』“本易象以明各步功法”，从第一步到第六步分别用大壮、夬、乾、姤、遁、否、观、剥、坤、复、临、泰等十二卦象来“说法”。现分述之：

(1) “法先闭目，意敛目神，向脑一注。”吕祖曰：存者真一，守者真元。真一是性，真元是气。脑为髓海，又为天性都会府，犹天上之有玉清胜境，其境至清，高居星月之上，乃太无之天，能知存守，自能明道。“继于脑中，向顶注之。”吕祖曰：脑为人身玉清宫，元始所居，顶曰凶门，穴名百会，乃三元聚会之所。上接三天真一，向顶注之，真一感通，真元汇注。得见红黄星点，若雨洒下为验。盖真一无形，所可见者真元。真元者，真一所生之气也。此为下手第一步。吕祖曰：法，法则也；功，功用也。法先闭目者，目为我心使气神，法目神在天，即为苟毕二师，其在人身，行则注于两涌泉，坐则注于两腰肾。闭也者，凝字之义也。曰微以者，有以若无以之义，意为心神之号令，令出乃行，犹人君之有诰敕也。曰上注者，有透顶而上之义。所以注迎真一之元，以护身世也。

(2) “乃自百会，下游阙盆”。百会，穴名，其穴在顶门；阙盆，亦穴

9) 『吕祖师三尼医世说述』，『藏外道书』第10册（成都：巴蜀书社，1992年），第346-347页。

10)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5页。

11)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5页。

12)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5页。

名，其穴在胸。吕祖曰：此不言意，意在其中。曰下者，引一引元，并下之义，味下句自可见。“游夫阨盆，体得闲趣。此为下手第二步。”吕祖曰：此步中必现有纷纭景象。若稍滞稍扰，天君有病，不惟无益，为害非细，而于下步，便无下手处矣。可不戒哉。

(3) “运值正午，诀惟勒照”；“已值未正，正本清源”；“一入申正，植培而已”；“若值酉正，诀惟致新”；“运至戌亥，法惟屯蒙以俟复”；“吕祖曰：究其致此之由，总因失照失培之故。言小元运之可挽于前也。此为下手第三步。三步中，分言六时者，功用至午位则为心，乃一身之宰，一世之宰。至未以下，则为腹，为阖浮提。世事不同，补救之法亦不同。故逐时分析言之，以明随运之用。此六时之用，皆言学问之事，谓当裕道法于未用之时。午未申酉戌亥皆迎一迎乾之所贯注。乾，君也，盖有随时医世之学术，而后可以任斯世之重，能调元赞化，而后可以上格君心，欲从事于泽民，必先以致君为主也。

(4) “已而华开见佛，自造庆会，于万斯年。此为下手第四步。”华，心华佛，喻君也。开者，开心见诚之义。中无意必固我，随机导引，格非启沃，大有红炉点雪之神…而君臣皆在一气之中，为上为德也，天下皆在一气之中，为下为民也，海隅苍生，阴受其福而不知矣。吕祖曰：惟知迎一与元者能之。

(5) “于斯时也，功造无间，一举一措，不谋自合，盖已两气混一，志神不二，是妙凝之神验。此为下手第五步。”吕祖曰：行到此步，益宜人我两忘，任此乾坤正气，氤如氤如，有弥天盖地气象，乃得此验，偶或现有戾机，必当参迎人元以通之，倍迎乾元以新之，坤元以和之，寂体真一以一之。自然君圣臣良，上下一气，功行不怠，造致雍熙，计日可待。

(6) “功到此际，朝宇雍熙，百工亮采而民隐君悉，从而加迎真一，下照万方，继迎坤元以抚之，乾元以一之，物产繁衍，民行淳驯。此为下手第六步。”

这六步功法，大致可以区分为三个基本阶段。其一，须依据『周易参同契』、『悟真篇』之丹法功理，先培元修身“了命”。道教向来认为无身不能

成道，故先治身。“即身即世，宜事培元。元培，功乃进焉。”<sup>13)</sup>具体诀要是“虚我色相，一我气神，卵而守之。久则内外无间，神完气足而精化。此身之神气既旺，则所事得实，必无不济而中止之虞。”<sup>14)</sup>修身了命是医世的前提与基础，固然十分重要，但性与命原不可分。人物得其灵明之理而为性，得其屈伸之气而为命。万物皆在性命之中，性命皆在真一之中。性命之外无道，性命之外无教。所以，医世说特别强调治心炼性的重要性。其二，修命必须修性，治身须治心。冈一得指出：“是道也，当于定静之中，寂审气机之通塞。及既充和，一守清明之在躬。有性命合理之理，而医世之用赅焉。”<sup>15)</sup>这一阶段主要是通过修心炼性定志，达到性命双修，其目的在于由后天返先天，“得见真一为宗”。“久之乃一丝不挂，身世两忘，归于太无。功竣一敛，全复太初，而缩斯身斯世于祖窍之中，悠然往手。斯时也，身世两益，嗣则相力加进…身不可不端直，心不可不专一，行不可不坚不恒。”<sup>16)</sup>通过一番持久的修身“了命”与“炼心”定志，就可以达到“身世两忘”这样一种境界。

每到身世两忘，旋现一境。上截澈清，下截浑和，虚无无际，返而内照此身，肢体脏腑，空无所有。但觉白者天如，黑者地如，且有激浊扬清之变化，流露于动静之中…<sup>17)</sup>

这一境界，实际上就是道教丹功常常所说的由后天逆返先天，复归于先天真元“真一”的一种身心状态。“真一者，持之不得，体之则存。上所言者，乃是真元。元之为物，有一以持之。”<sup>18)</sup>到了这样的一种境界，就可以转入下一个基本阶段。

其三，“内则用以治身，外则用以治世”<sup>19)</sup>，由治身继而治心，进而治

13)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5页。

14) 『三尼医世说述原序』，『藏外道书』第10册，第346页。

15)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7页。

16)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5-356页。

17)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6页。

18)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6页。

世, 从而完成“医世”目的, 由闵一得重述并注的『吕祖师三尼医世功诀』对此有一番说明:

余今以师传实效录述于世, 惟愿学者纯以调心虚寂之门, 调至胸怀清静而天都泰安, 调至坤腹通泰而闾阎富庶, 调至四肢通畅而四夷安靖。如是体调而身安, 身安而世治, 功效捷如响。<sup>20)</sup>

通过治身、治心进而即身入世治世, 达到“天都泰安”之人与自然的和谐, “四夷安靖”之社会安定, “闾阎富庶”之民富国强“世治”目的。

### 三、大巡“济生医世”与闵一得“医世宗”之 “即身医世”思想的关系

#### (一) 二者都受到早期道教“身国同治”思想的影响

“身国同治”论是道教的一个重要思想理念。汉代『老子道德经河上公章句』就有“全身治国”<sup>21)</sup>的思想, 将治身与治国并论: “用道治国, 则国富民昌, 治身则寿命延长。”<sup>22)</sup> “万民归往而不伤害, 则国家安宁而致太平矣。治身不害神明, 则身安而大寿也。”<sup>23)</sup> “希能有及道无为之治身治国也。”<sup>24)</sup> 道教理论家葛洪对此也作过阐述: “内宝养生之道, 外则和光于世, 治身而身长修, 治国而国太平。”<sup>25)</sup> 道书中身国同治论也很多: “一人之身, 一国

19)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 『藏外道书』第10册, 第356页。

20) 『三尼医世功诀』, 『藏外道书』第10册, 第364页。

21) 王卡点校: 『老子道德经河上公章句』(北京: 中华书局, 1993年), 第243页。

22) 『老子道德经河上公章句』, 第140页。

23) 『老子道德经河上公章句』, 第139页。

24) 『老子道德经河上公章句』, 第173页。

25) 王明: 『抱朴子内篇校释』(北京: 中华书局, 1985年), 第148页。



之象也。胸腹之设犹宫室也，肢体之位犹郊境也，骨节之分犹百官也，腠理之间犹四衢也，神犹君也，血犹臣也，犹民也。故至人能治其身亦如明主能治其国。”<sup>26)</sup> 身国同治论是道教天人同构、天人相应哲学观在社会政治、医药养生领域的合理推行。既然天地人是处于一个互感互应的系统之中，那么人之身心状况就与天地万物自然环境、社会环境密切相关。换句话说，天地之病（社会关系中人与人、人与自然的冲突失序）与人体疾病（人之身心内外关系失衡）休戚相关。『太平经』中就有这一认识：“天地病之，故使人亦病之，人无病，即天无病也；人半病之，既天半病之，人悉大小有病，即天悉病之矣。”<sup>27)</sup> 既然如此，对社会人事“疾病”的治理与人体疾病的疗治就可以相互借鉴，治国和理身从本质上就统一起来了，这种身国同治论为道教“医世说”提供了理论根据。冈一得在『吕祖师三尼医世功诀跋』中，针对人们对医世说的疑虑，就依身国同治论作了明确的说明：

又疑而问曰：世之为病多端，医世之事亦多术。如禳旱涝、消疹疹…皆当有大神通、大法力，施符持咒，分应而不穷。今是书以一法而欲治众病，若是其疏乎？…凡世间之病皆五行偏胜之气。吾人一身之中，具五行之正气，应五方之分野，察其受病之源，攻其受病之方，合人世之气于一身，内不见我，外不见人世。过者损之，不及者益之，郁者散之，顽者化之，逆者顺之。病不可悉数，医道亦不可殚述。消息盈虚，各视其症而理之。人或有病，以吾身之阴阳运化之；世或有病，亦以吾身之阴阳调摄之。<sup>28)</sup>

不难看出，身国同治是道教“医世说”立论的一个重要理论基础。

而对比大巡『典经』等教义理论，其“济民医世”思想的理论基础也是道家的天人合一观念，受到道教“身国同治”思想的影响。笔者仔细阅读大巡『典经』，发现『典经』中在阐述“济生医世”思想时，其中也蕴含着类似的“身心同炼”“身国同治”思想。

26) 王明：『抱朴子内篇校释』（北京：中华书局，1985年），第148页。

27) 王明：『太平经合校』（北京：中华书局，1960年），第355页。

28) 『吕祖师三尼医世功诀跋』，『藏外道书』第10册，第361页。

『大巡指针』在修行上也特别强调“须以心修炼，身体力行，使身心达到统一。”<sup>29)</sup>

大巡以“安心”、“安身”、“敬天”和“修道”四纲领为修行训典，以达到“作真正道人”之目标，其背后蕴含着天人合一、天人相应、天人同律的哲学构架：

### 安心<sup>30)</sup>

- 一、“大病之药安心安身”，须铭记在心。
- 二、心临一身，统率理用万机。
- 三、心为身之主，招致诸病诸恶。
- 四、『典经』中道：“心也者，鬼神之枢机也，门户也，道路也。”因此，发心时，须舍邪心、合乎礼法，即安心。”

### 安身<sup>31)</sup>

- 一、心安身泰，是指唯心安，身得太平。
- 二、心犯罪恶，身受其罚，切勿自作自受。
- 三、『典经』中道：“病自己而发”，须铭记于心。
- 四、吕洞宾曾云：“身病可药，心病难医。”古人亦云：“诸病由心起。”须知心主宰身体。
- 五、感念上帝的恩惠，报答生身父母之恩惠，修行当身心一如。

### 敬天<sup>32)</sup>

- 一、须知己为九天大元造化主神——九天上帝主宰下的一凡人。
- 二、道人对九天上帝的大巡真理奉教信仰不存邪念，极尽敬虔一念之心，即敬天。

上帝教示“日月无私治万物，江山有道受百行”，并作五咒，名为天地津液。<sup>33)</sup>

29) 『大巡指针』第二编第一章第五节「修行」，第23页。

30) 『大巡指针』第二编第二章第一节「以四纲领为修行训典作真正道人」，第27页。

31) 『大巡指针』第二编第二章第一节「以四纲领为修行训典作真正道人」，第27页。

32) 『大巡指针』第二编第二章第一节「以四纲领为修行训典作真正道人」，第27-28页。

33) 『典经』，第159页。

其五脏咒与道教医学身体观如出一辙：

天尊曰木肝中青气从左便重出化为火心中赤气从前面重出化为金肺中白气从右便重出化为水肾中黑气从背上重出化为土脾中黄气从额头上重出化为百节气从千脉贯通百事如意万事如意天上天下地上地下人间万事无不通知急急如律令

而大巡《典经》第三编「教运」第二章记述“旧泰仁道昌岷道场于乙丑年竣工。道主在此创立了无极道，将姜甑山作为“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上帝”奉安于灵台，确立了宗旨、信条与目的。”<sup>34)</sup>

宗旨：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  
信条：四纲领：安心·安身·敬天·修道

而大巡真理会所要达到的三大目的：

无 自 欺 — 精神开辟  
实现地上神仙 — 身心改造  
建设地上天国 — 世界开辟<sup>35)</sup>

那么，如何才能达到这一至高无上的目的呢？大巡真理会也同样是从身国同治的思维模式，提出内炼丹法，内法外用，从而达到济生医世。

以潜心静心，集永侍从上帝身边之至诚精神于丹田，不断磨练，灵通为目的，诚之又诚，念念自在，念念相续，至诚奉诵。<sup>36)</sup>

从这三大目的和实现的法门诀窍中，我们都不难看出，其境界也是天地与身心和谐安泰的，背后同样蕴涵道教“身国同治”哲学思想。

34) 《典经》，第210页。

35)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大巡真理会要览》(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中文第一版)，「目的」，第4页。

36) 《大巡真理会要览》七信条「修道」，第12页。

## (二) 二者产生的理论背景都是儒释道“三教并用”“三教同修”

大巡“济生医世“与“一得”即身医世“学说都是是明清以来三教合一思潮影响下的产物。

『吕祖师三尼医世说述』明确指出“医世说乃三教之精蕴”：

三尼者，孔子、如来、老子也。『心印集经』曰：青尼致中，仲尼时中，牟尼空中。…纯阳真人，化号文尼，职司铎化，故诏以三尼之道，敷锡于世，阴鹭下民。吕祖师之统儒释道以宣教。天所命也，是以宝诰亦称为三教之师。医世说乃三教之精蕴。<sup>37)</sup>

儒释道三教虽然各有教旨，但就“尽性知命而功及于天地，则三尼同道。”<sup>38)</sup>

儒家向来以齐身治国平天下为宏旨，而释家也有“持世”一说。在“一得”看来，道教“医世”之说“乃有身治世宁之义”，<sup>39)</sup>其实质是相通的。“佛曰持世盖犹我宗之医世，乃有身治世宁之义。”“盖缘身气世气一气也，人性佛性一性也，同属陀罗尼，故可即身以持世，舍性而持便落外道，不可不悟者也。际莲（指“一得”）注云：体此大可与『三尼医世』一书并参，儒教道教不外乎此训以注是经。”“一得”，清乾隆、嘉庆、道光年间高道。

关于其生平事迹，先生姓闵，名荅敷，字补之，一字小良，懒云为其道号。世为吴兴望族，生于乾隆戊寅十二月初（公元1758年），卒于道光丙申十二月初十日（公元1836年）。幼颖，素羸弱，谒东篱高子（高清昱，龙门第十代传人）于桐柏山，习导引术数年，体始充。遂皈依龙门，派名一得。病愈后返家，资性绝人，读书穷理，不为应举业。比壮有经世志，以父命入赘为州司马，服官滇南。未及一年，父丧，奉讳归，绝意仕进。东篱羽化后，从东篱高弟子沈轻云问业。轻云卒，出游吴楚燕赵，先后遇金

37) 『吕祖师三尼医世说述』，『藏外道书』第10册，第348页。

38) 『吕祖师三尼医世说述』，『藏外道书』第10册，第348页。

39) 『持世陀罗尼经跋』，『藏外道书』第10册，第558页。

怀怀、白马李、李蓬头、龙门道者，相与往复，讲论多所契合。闵一得晚年隐县之金盖山，生平勤于著述，辑书『隐楼藏书』三十余种，别撰『金盖心灯』八卷。闵一得修道思想的一大特色就是“三教同修”，“以儒释之精华论道家之元妙言”<sup>40)</sup>，“其教人也，有体有用，有本有末，笃于实行，不事神奇。大旨以修身寡过为入门，穷理尽性至命为究竟”<sup>41)</sup>。

闵一得还自号发僧际莲，曾谒鸡足道者，得传西竺斗法，并将释家参禅悟道、明心见性之法引为修真之要；他身为道门中人，却有“儒者气象”。临卒前一夕，集孟子作连句曰：“善养吾浩然之气，不失其赤子之心”以示门人。“医世说”系统阐发于『古书隐楼藏书』之『吕祖师三尼医世说述』、『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吕祖师三尼医世功诀』中。

『吕祖师三尼医世说述』卷首题为龙门第八代戒子黄守中题，第十一代闵一得谨疏。开篇点明了此书系由降乩形式而成：“吕祖笔之于书，以授门下。历代祖师宝之，藏于梅岛之龙桥山房，地为黄隐真律师别业，今址犹存。…曰吕祖师三尼医世说述者，正以明是书，尚有三圣本经。吕祖师述其意以教人云尔。”<sup>42)</sup>黄守中即鸡足道者，曾于北京白云观受戒于王常月，开创了龙门派一个特殊支派——西竺心宗。需要特别指出的是，闵一得本人因为特别青睐其“即身医世”的医世说，甚至将其一派标榜为“以医世为宗”的“医世宗”。

返观大巡真理会教义思想体系，其儒释道三教合一思想是十分明显的，学术界多有阐述，本文不拟展开，仅从“济生医世”学说产生的思想背景略加说明。

『典经』第一编「行录」第二章开篇记录了大巡上帝在丁酉年的事迹：

丁酉年，上帝再一次开学塾于郑南基家中，教授弟子永学、亨烈之子赞文以及邻里孩童。这一时期，上帝通读了儒佛仙以及阴阳谶纬类书籍，以此为匡救天下之参考。<sup>43)</sup>

40) 晏端书撰『闵懒云先生传』，『藏外道书』第10册（成都：巴蜀书社，1992年），第154页。

41) 晏端书撰『闵懒云先生传』，『藏外道书』第10册，第154页。

42) 『吕祖师三尼医世说述』，『藏外道书』第10册，第348页。

43) 『典经』，第17页。

『典经』第三编「教运」第一章，对西方利玛窦传来的西方文明与传统的儒释道文化的功用有一个评价：

一日，上帝对金亨烈道：“西洋人利玛窦来此东方，欲建地上天国，却因儒教根基深厚，积弊日久，改革难行，终未能如愿…上帝又道：“然其文明者，倚重于物质，助长了人类之傲慢，以致动摇了对天理之信心、为征服自然犯下了种种罪恶，荡涤神道权威，致天道与人事常道皆有忤违，三界混乱，道基断绝，因此，一切原始神圣、佛、菩萨等汇集一起仰望九天控诉人类与神明界之罪恶与劫难。吾降临西洋大法国之天启塔，大巡天下，临于东土朝鲜鲜岳山金山寺三层殿弥勒金佛三十年，为崔济愚开示了济世大道。<sup>44)</sup>

此段文字记述了上帝开启教运，为崔济愚开示“济世大道”的缘由。

大巡的修行思想受儒释两家思想影响很深，是以“诚敬信”为修行“三谛要”，在修道方法上呈现出“儒道合修”“道释同为特色。强调“正确理解诚敬信三要谛加以修行”。“人之精、气、神合一时成就真诚。”<sup>45)</sup>

诚是儒家最重要的核心思想之一，『大巡指针』也没取了这一思想，明确提出“以至诚正心修身”：

- 一、被尊为圣贤的古人，皆以“诚”为至宝，毕生至诚追寻真理的人。
- 二、诚者天之道，诚者人之道，至诚修道者也。
- 三、诚不为干预和牵制，不为增不为减，唯取决于心定而成就。
- 四、至诚乃追寻真理之本，不诚则逆理，难免作茧自缚。
- 五、依自诚栋筑的至诚塔不为人破坏或者倒塌，此类恶行亦不为神容。<sup>46)</sup>

有关“信”在修行中的意义，『大巡指针』专门列举了九条之多：

(1)若无自觉，就无确信；(2)『典经』中道：“秋收之后，农家往往收留种子，是为信乎大地之故也，”意指诚心务实才不违于信仰之本

44) 『典经』，第148页。

45) 『大巡指针』第二编第二章第二节「正确理解诚敬信三要谛加以修行」，第28页。

46) 『大巡指针』第二编第二章第三节「以至诚正心修身」，第21页。

意。(3)百姓不信任国家，子女不信任父母，则终为乱臣贼子。(4)若修道者缺乏信仰，则终为乱法乱道者。(5)信须一以贯之。以三界三法之诚信，实现自我大成。(6)信乃毫不怀疑而坚定不移的信念。(7)诚不得有欺心，敬不得无礼无节，信不得怀疑心。(8)须知布德、教化、修道等诸事，离诚信均无法实现。(9)以诚信实现解冤相生，亦判断生死。<sup>47)</sup>

其中最后一条“以诚信实现解冤相生，亦判断生死。”凸显了大巡“济生医世”思想的儒家色彩。在『典经』道主所宣讲的“觉道文”也明确宣称“仙儒佛大道正通”：

圣人之道德，元亨利贞，大经大法。道正天地，数定千法，而理定心法，正大光明，仙儒佛大道正通。<sup>48)</sup>

大巡『典经』虽然吸收了大量儒家治世与释家“修心”思想，但是其对儒释两家学说的弊端也有充分的认识，这也是上帝降临的一个直接原因。“然济愚未能超越儒教典究，不能明大道之真髓，故吾于甲子年收起天命与神教，于辛未年降临世间。”<sup>49)</sup>

务实求存，注重现世人生与自然社会的“治理”，出世而不离世是道教教义思想的特色之一。从早期汉代的『太平经』到清代闾一得所辑『古书隐楼藏书』，道教治世思想从早期救世说演进为“即身以治世”的医世说。<sup>50)</sup>

『大巡指针』第一编第二章第三节“以相生原理布德、教化”

- 一、以解冤相生、报恩相生这两大原理作为宗教法理，化民靖世，在人间建设乐园，乃匡救天下、广济苍生之大义。
- 二、布德，乃救济苍生为目的，以『典经』为基础，广播上帝大巡之匡救天下之真理，广结善缘。
- 三、传授解冤相生大道之真谛，即布德。只有布德天下，才能广济苍生。

47) 『大巡指针』第二编第二章第二节「正确理解诚敬信三要谛加以修行」，第30-31页。

48) 『典经』，第211页。

49) 『典经』，第148页。

50) 参见盖建民「闾一得与道教“医世说”」，《世界宗教研究》第一期(2002年)。

- 四、布德，即广为传播上帝为匡救天下、广济苍生而力行的九年“天地公事”，使人们享受地上乐园之幸福。
- 五、在布德过程中，须弘传作为主宰宇宙的主人的上帝为无量德化与无边权智的所有主。
- 六、教化是使入道的道人自认自觉已迎接再生不易之天运救人时代。
- 七、以教化使道深入人心，并以实际行动实践垂训的真法，方能使修道者入门。<sup>51)</sup>

大巡教义思想中蕴涵有丰富的济生医世思想，“圣师以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大道之真理和神人依导之理法解冤，终天地公事之所冤郁，使世界变成无相克之道化乐园，此乃圣师大巡之真理。”<sup>52)</sup>其与道教『太平经』「老子想尔注」「老子道德经河上公章注」「救世」「治世」、「理身治国」思想以及闵一得『古书隐楼藏书』“即身医世”的“三尼医世说”有密切思想渊源关系。

#### IV. 大巡“济生医世”与道教“即身医世”思想的现代意义

闵一得“即身以治世”的“医世”思想是道教庞大思想体系中的一个重要组成部分，反映了道教出世与入世并重的特征，也是明清道教学者对道教修身济世利人教义的进一步发展，其与大巡真理会的“济世医世”异曲同工，二者所蕴涵的医治社会弊病，纠治与调摄人与人、人与自然、人之身心内外关系的种种观点和见解，极富特色，其中不乏真知灼见与前瞻性。在二十一世纪科技文化高度发达的今天，“医世”思想中所透射出的人文关怀、社会政治和生态伦理精神，仍有现代价值和意义。

务实求存，注重现世人生与自然社会的“治理”，出世而不离世是道教教义思想的特色之一。道教之教义，本不限于出世，而是以一种超越世俗的精

51) 『大巡指针』第一编第二章第三节，第7—8页。

52) 『大巡真理会要览』三「趣旨」，第4页。



神，和光同尘，随方设教。济世利人、服务社会人群历来是道教中人的优良传统。从早期汉代的《太平经》到清代闵一得所辑《古书隐楼藏书》，道教治世思想从早期救世说演进为“即身以治世”的医世说。如果《太平经》的“救世说”是早期道教治世思想得典型代表，那么，清代闵一得的“医世说”则代表了后期道教治世理论新思想。“医世说”的产生，与明清之际道教“三教合一”思潮的成熟，明清道教发展的势头由上层转向民间，道教进一步世俗化、民间化有着密切的关系，同时也与明清社会的复杂社会历史背景有着直接的关联。对比大巡真理会义思想体系，其“济生医世”思想同道教“即身医世”其所内蕴的丰富修身治世“道理”，有其现代社会管理与治理的意义，蕴涵有深刻的现代社会政治伦理价值。

其一，大巡与道教治世思想都认为社会治理是一个系统工程，强调天一地一人综合治理；其天地人共治的社会治理思想包含有深厚的环境伦理价值。二者“医世”所强调的社会治理是一个系统工程，强调要天一地一人综合治理，只有天地人共治，才能取得良好的治世效果。这是因为二者“医世”理论是建构在天人一体的人天观基础之上的。天人同构、同源，彼此感应是道教人天观的基本内核。从这一人天观出发，人就不仅是以单个个体的形式孤立生存着，而是生存于相互感应、彼此依存和互相制约的天地人大系统之中。天中有地，地中有天，人中有天地。天地人这三个子系统又彼此包容、相互作用。如《黄帝阴符经》所说的“天地，万物之盗；万物，人之盗；人，万物之盗。三盗既宜，三才既安。”只有认识并处理好这种相互盗取的关系，才能使天地人这一系统稳定有序，从而发挥系统的正常功能。建立在这种宗教哲学基础上的医世理论，其对社会的治理（治人，调整人与人的关系）就必然要重视人与天、人与地关系的协调，强调人与自然环境和谐。正因为如此，二者“医世”学说中有许多反对人类过份向天地盗取资源，如滥伐山林、过度开采矿石、毒杀动物的环境保护与治理思想。

其二，大巡真理会“济生医世”同道教“即身医世”说，都将治国与治身结合起来，主张身国同治，使得大巡真理会、道教内修外养成仙出世与济世

利人入世的冲突与矛盾问题得到圆满解决，进而为教徒在现实生活中修身济世提供神学理论依据。大巡“济生医世”与道教“即身医世”的“医世”思想反映大巡真理会与道教都有出世与入世并重的特点，是大巡真理会济世利人、服务社会之“真精神”的集中体现，也折射出二者适应社会、顺应社会发展的时代要求。

出世与入世是一切宗教之践行活动所必须面对和回答的基本问题。道教之教义，本不限于出世，而是以一种超越世俗的精神，和光同尘，随方设教。出世而不离世，素有济世利人、服务社会人群的传统。道教创立之初就以除人间疾病，致天下太平为已任，带有明显的积极入世特征。汤一介先生认为：“虽然佛教和道教作为宗教说都是以所谓“救世”为目标。但在“出世”和“入世”关系的问题上却存在着显著的不同，这个问题也反映了两种不同传统文化的差异。中国传统思想大都是把积极“入世”看成是最高政治和道德的准则。道教在这方面也深深地打上了这一积极入世思想的烙印。”<sup>53)</sup>医世说强调即身以治世，“…一性之正，稟赋乃全。于是用志不分，以之医世，出神入化。近则一家一村，远则一县一郡。推其极则四大部洲，无不调摄于此方寸之中。消其灾沴，则无水火、刀兵、虫蝗、疫。正其趋向，则俗无不化，人无不新，民安物阜，熙熙然如登春台。小用之而小效，大用之而大效。”<sup>54)</sup>由此可见，道教“医世”的目的在于“上合仁主之心，下济生灵之厄”，使“版图之内，无有顽民、污吏”<sup>55)</sup>，达到民安物阜的太平盛世，最终建立人间仙境。

而大巡真理会也同样强调“济生医世”目的也是最终建立“人间仙境”。“大巡真理会以诚、敬、信三法言为修道之要谛；以安心、安身、二律令为修行之训典；以三纲五常为营建和平家庭之根本；以遵守国法为遵行社会道德之要求；以无自欺为修心炼性、洗气炼质之原则，还原人类本来清净本质。以此对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之大巡真理加以勉

53) 汤一介：『魏晋南北朝时期的道教』（台湾：东大图书公司印行，1988年），第375页。

54) 『吕祖师三尼医世说述管窥』，『藏外道书』第10册，第356-357页。

55) 『吕祖师三尼医世说述序』，『藏外道书』第10册，第345页。

修，诚之又诚，达能够正觉道即我、我即道之境界。一旦豁然贯通，三界透明、森罗万象之曲尽理解无所不能，此乃灵通，亦谓道通。”<sup>56)</sup> 大巡真理会的三大目的有二是“实现地上神仙一身心改造”“建设地上天国一世界开辟”<sup>57)</sup>，其与道教“人间仙境”建设思想是一脉相承的。

总而言之，大巡真理会“济生医世”与道教的“即身医世”思想，体现了二教在社会现实中修身济世利人的教义，是宗教适应社会发展、顺应时代要求的产物。其所蕴涵的医治社会弊病，调摄与纠治人与人、人与自然、人之身心内外关系的种种见解和观点，有其现代价值和意义。我们应重视并汲取大巡真理会“济生医世”与道教“即身医世”的思想，引导教徒面向社会生活，关注社会生活，发扬其中蕴含的优良传统和精神，诸如道法自然的行为原则，天人和谐的生态智慧，虚静恬淡、抱朴守真的精神境界，崇俭抑奢的生活信条，乐人之善、济人之急、救人之危的伦理精神，重人贵生、性命双修的养生思想，匡正时弊，净化社会风气，促进社会物质生活和精神生活的和谐有序和可持续发展。

---

56) 『大巡真理会要览』三「趣旨」，第4页。

57) 『大巡真理会要览』八「目的」，第4页。

## 【參考文獻】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典經』,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指針』,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真理會要覽』,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三尼醫世說述原序』, 『藏外道書』第10冊, 成都: 巴蜀書社, 1992年版。
- 『呂祖師三尼醫世說述管窺』, 『藏外道書』第10冊, 成都: 巴蜀書社, 1992年版。
- 『呂祖師三尼醫世說述』, 『藏外道書』第10冊, 成都: 巴蜀書社, 1992年版。
- 『持世陀羅尼經跋』, 『藏外道書』第10冊, 成都: 巴蜀書社, 1992年版。
- 晏端書撰, 『閑懶云先生傳』, 『藏外道書』第10冊, 成都: 巴蜀書社, 1992年版。
- 王明, 『太平經合校』, 北京: 中華書局, 1960年版。
-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5年版。
- 王卡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1993年版。
- 蓋建民, 「閑一得與道教“醫世說”」, 『世界宗教研究』第一期, 2002年。
- 湯一介, 『魏晉南北朝時期的道教』, 台灣: 東大圖書公司印行, 1988年版。

■국문요약■

## 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即身醫世)’ 사상 및 현대적의의

가이젠민(蓋建民)

사천대학종교연구소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의 ‘제생의세’와 도교의 ‘제인도세(濟人度世)’, ‘신국동치(身國同治)’ 사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특히 대순의 ‘제생의세’ 사상은 중국 명나라시기 도사인 민일득(閔一得)이 저술한 『고서은루장서(古書隱樓藏書)』에 나오는 ‘즉신의세’ 사상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대순진리회 역시 도교와 마찬가지로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사상을 통해 내단 수련법을 제시하였으며, 내법(內法)을 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삼대목적(三대목적)을 실현하는 요결(要訣)을 보면, 그것은 곧 천지와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순사상은 도교의 ‘신국동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와 민일득의 ‘신국동치’ 사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유불도 ‘삼교병용(三教并用)’, ‘삼교동수(三教同修)’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순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은 모두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교리를 담고 있다.

양자 모두 사회의 병폐를 충분히 인식한 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

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려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견해는 매우 큰 특색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의세(醫世)’ 사상이 나타내는 인간에 대한 관심, 사회와 생태계에 대한 윤리의식은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지닌다.

이들은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탄생된 종교 사상이다. 이는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도교, 민일득, 의세종, 제생의세, 즉신의세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12월 29일